

#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11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## □ 국내

○ 현대엔지니어링, 용인·여수 발전사업 우협 선정... 총 2조3826억원 규모 ('26.9.10, 조선비즈)

-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2조3826억원 규모의 용인·신호남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함
- 용인 사업은 발전용량 1050MW·열공급 517Gcal/h, 사업비 1조7526억원 규모이며 2026년 9월 착공해 2030년 9월 준공할 예정임
- 전남 여수의 신호남 사업은 발전용량 500MW·사업비 6300억원 규모로 2027년 6월 착공, 2030년 5월 준공 예정임
- 두 사업은 준공 초기 LNG를 사용하고 향후 수소 혼소·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됨

○ 롯데정밀화학-아모지, 그린암모니아 기반 청정 에너지 사업 MOU ('26.9.10, 머니투데이)

- 롯데정밀화학은 미국 아모지와 9일 청정암모니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함
- 양사는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조달·유통망과 아모지의 크래킹 기술을 결합해 수소충전소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함
- 양사는 분산형 발전 솔루션 구축을 모색하고, 아모지의 발전 모듈을 탑재한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임

- [분석] 에너지전환·자원안보 ‘한 지갑’ 분리…개정 효율 높일까  
(‘26.9.10, 에너지데일리)
  - 박정 의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사업과 재원을 기후대응기금·자원안보기금으로 재편하는 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’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함
  - 개정안은 수소경제 전환과 재생에너지, 효율개선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하고 비축과 핵심광물,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구분하는 내용임
  - 개정안에는 수소경제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됨
- 수소안전정책·규제특례·시험인증 현장애로 해소 ‘특별세션’ 열린다  
(‘26.9.10, 에너지신문)
  - 한국가스학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월 12일 대구 EXCO에서 수소기업의 정책·규제·검사·인증 관련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특별세션을 공동 개최할 예정임
  -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수소안전정책과 KGS Code 개정방향, 규제특례 신청·보완 및 사업화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임
  - 세션에서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와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,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및 Hy-PAS 이용절차를 설명하고, 9월 8일부터 접수한 사전질의를 답변자료에 반영할 예정임

## □ 해외

- [스페인] HVR 에너지, 수소충전망 확대 위해 2000만 유로 확보  
(‘26.9.9, Fuel Cell Works)
  - HVR 에너지는 스페인 수소충전망 확대를 위한 2000만 유로(약 310억 원)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함
  - 샌드턴이 1500만 유로(약 230억 원), 바렌츠리가 300만 유로(약 50억원), 랑구르가 200만 유로(약 30억 원)를 투자했으며 2025년 이후 조달한 자금은 총 5300만 유로(약 825억 원)를 넘음
  - 회사는 신규 충전소 설치와 운영 역량 강화에 자금을 투입하고, 2030년까지 스페인에서 충전소 75곳을 운영할 계획임
  - 2023년 마드리드 코슬라다에 첫 충전소를 가동했으며, 기존 부지에 설치하고 수요에 맞춰 확대할 수 있는 모듈형 충전 인프라를 개발함
  - 회사는 약 20m<sup>2</sup>의 설치면적과 15kW의 운영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설비 대비 투자비를 최대 75%, 운영비를 최대 85%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함
  - 회사는 운송 회랑과 주요 거점을 잇는 충전망을 구축하고, 긴 주행거리나 높은 운행률 등이 필요한 운송 분야에서 수소를 배터리 전동화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임

○ [일본] 재팬엔진, 대형 외항선용 수소엔진 완성  
(‘26.9.9, Fuel Cell Works)

- 재팬엔진은 대형 상선용 수소엔진 ‘6UEC35LSGH’를 완성하고 9월 7일 본사 공장에서 공개했다고 함
- 회사는 공장 운전시험에서 수소 혼소율 95% 이상을 달성하고, 기존 중유 엔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95% 이상 줄였다고 설명함
- 고압 직접분사 방식으로 수소의 안정적인 연소를 구현하고, 공급 배관에 이중관을 적용해 누출을 방지했으며 일본해사협회 입회 승인 시험을 마쳤음
- 엔진은 MOL과 MOL 드라이벌크가 오노미치조선에서 건조하는 1만 7500DWT급 다목적선에 2027년 1월 탑재될 예정임
-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·제작하는 선박용 수소연료공급시스템과 연계해 해상 시험을 진행한 뒤, 2028년 4월부터 실제 선박 실증에 착수할 계획임
- 가와사키중공업은 액화수소 병커링 설비도 개발·제작하며, 실증에서는 실제 운항 조건의 엔진 내구성 등을 검증할 예정임



< 사진: 수소추진 다목적선 조감도, 출처: Japan Engine >